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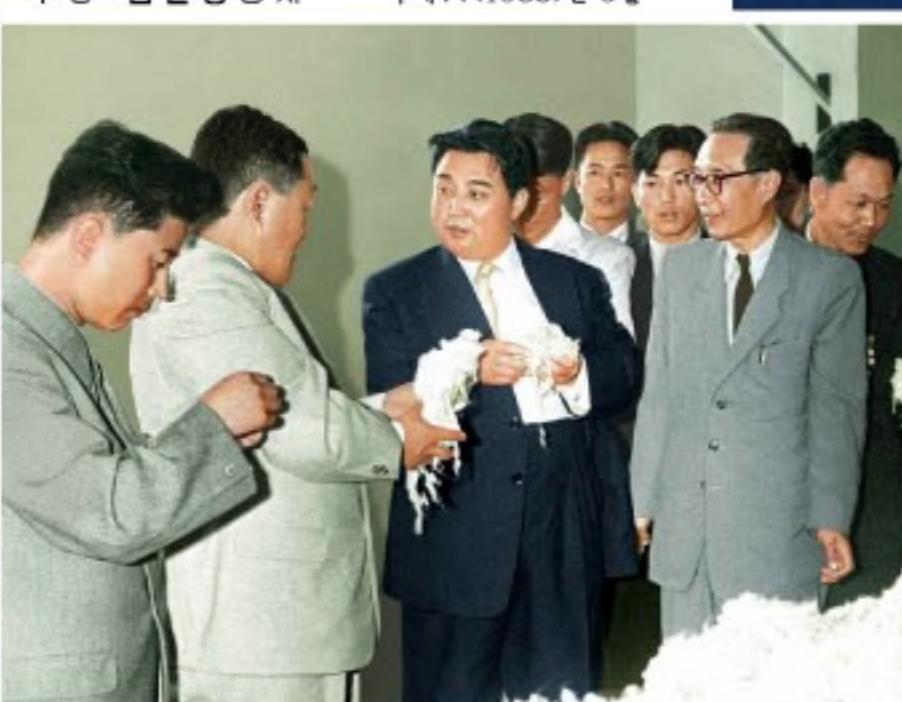
#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황해제철소로동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8(1959)년 9월  
주체77(1988)년 9월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레제를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4(1956)년 4월



2. 8비날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10월



북청군룡전리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0(1971)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영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3(1964)년 12월



강서군 청산리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7(1958)년 10월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6(1967)년 10월



魯성기계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6(1967)년 6월



수도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1(1982)년 11월



청진항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3(1974)년 6월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4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우리 유행의 눈부신 데야이시며 불래의 대강국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혁명의 전투에 높이 받들어 위대한 김일성同志, 김정일조선의 무궁창창한 말에 대한 확신과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인민의 끝없는 영광이 새로운 주체 100돐대의 장엄한 흥진군길에 차넘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4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역사적전환기에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냄새와 의사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당, 친란한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와 민족민대의 강성번영을 담보하는 특기할 사변이 있으며 혁명적대경사였다.

당의 향도따라 최후승리의 레성을 부르며 만리마의 기상으로 질풍처녀당리는 70일전투의 철야전군길에서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특출한 정치실력과 헌신하고 세련된 명도로 혁사의 둘째를 맞받아 놓고 백두산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궁전은 강대한 선군조선의 기상이시고 높뛰는 조선의 심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과 신뢰심으로 끓어버지고 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민방통군, 노동직원군 기관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평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역, 정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충청북도 일군들, 70일전투에서 모범적인 일군들과 봉오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김정은장군찬가》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혼연히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명석동지, 박봉주동지, 김기현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페우용동지, 오수용동지, 김정해동지, 김영천동지, 희부일동지와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로 강회발전시키며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악동하는 활약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풍물격전에서 봉오운 승리자가 될 참가자들의 불리는 열의가 차남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 찬가》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동지

원수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4돐이 되는 2016년 4월 15일에 즈음하여 당신에 충실히 되는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경로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일을 맞이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조선혁명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친선적인 귀국이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독자적정책을 실시하며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이끄신 그이의 저록한 업적들을 둘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이 특별한 기회에 러시아아랍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러해관계에 부합되게 더욱 굳건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원수동지께 가장 충실히 되는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알아сад

2016년 4월 10일

디마스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타니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데양절과 두나사의 외교관계설정 50돐에 즈음하여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니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푸함미드 하반 주조 팔레스타니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꾼수용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와 함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1

#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성국가 건설대업의 승리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차수 황병서 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력이 온 누리에 힘 있게 맡쳐지고 뼈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이 편이어 이룩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4돐을 뜻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역사적전환기에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님원파의사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빛나는 모신것은 당과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위대한 봄영의 새 력사를 펼친 들판의 힘을 시민이며 혁명적대경성하였습 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맹예가 굳건히 이어지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로서의 혁명적성격이 끊임없이 고수되며 되었으므로 새로운 주체 100년대전군의 훌륭한 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당의 기치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끌어안고 당과 국가로서의 혁명적성격이 끊임없이 고수되며 새로운 주체 100년대전군의 훌륭한 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당의 기치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끌어안고 당과 국가로서의 혁명적성격이 끊임없이 고수되며 새로운 주체 100년대전군의 훌륭한 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새시대가 절쳐진 지난 4년간은 력사의 종업한 폭풍우속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의 필승불패성이 힘 있게 파시되며 강성국가건설의 일대 전진기회가 열려자 자랑한 날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선군혁명의 길을 함께 헤쳐 오시며 천출위인의 비범한 봉도종모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신뢰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말기고 가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한몸에 안으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주시며 끊임없이 봉사를 창조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 생활문화를 천만 가지 국사중의 제1국사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넣으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윤족한 생활을 안겨 주시려 온갖 실력을 다마치되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길에 한층의 모래알이 되어 뿐리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굽은날, 미쁜날 가리침없이 헌지지도 강행군장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고고의 자속마다에서 인민들 편에 후대들을 위한 생간기지, 문화장서 행할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행복의 보금자리를 훌륭히 마련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가장 빛나는 광장을 아로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역사가 영원히 끝기자계 흐르게 하시고 수령의 유훈판월절에 걸맞게 조직동원하여 최후승리를 위한 토대를 둔튼히 다지시였습니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사상의 활동으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뼈대로부터 당, 국가, 무력건설과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모든 분야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두렷이 밝혀주시었습니다.

생생길, 가시밭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애국현신의 철아진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힘찬 발걸음따라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 단결이 백배해지고 군력강화의 최전성기가 절쳐졌으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기를 주무는 만리미시대의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개단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정치사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같이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상의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며 그처럼 짧은 기간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유례없는 비약과 전면을 이루으시고 당과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최고의 높이에 끌어세우신 절출한 봉도자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실록은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틀어쥐시고 학월하고 세련된 명도에 높을 배우산대국의 및나는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시는 불멸의 로정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대중 제1일주의를 높이 드시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비상을 전면적으로 꽂워나가시는 인민의 봉도자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조선인민의 영상으로 정직하게 저지하고 수령님들을 모시기 밟아나가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이며 정치리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위대한 사상을 원망하지 않고 인민대중에 대한 평가를 당파 국가의 존재방식으로 내세우시았으며 당사업과 국가활동을 철두철미 인민의 요구와 피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조직진행해나가도록 이고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구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시대의 전철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국방부의 주체화, 현대화, 학파화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철학적원리와 철학적원리를 더 거두주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하고 어려운 전



